

實證史學으로 국사학의 기반 확립

著述을 통해 본 斗溪史學

李基白

한림대 교수 · 한국사

斗溪선생은 거의 모든 시대, 모든 분야에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흡수하고 이에 새로운 고증을 더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점이 斗溪史學으로 하여금 긴 생명을 갖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초의 국사개설서 「韓國史大觀」

斗溪 李丙燾선생이 가장 일찍 출판한 저술로서는 「譯註三國史記」를 들어야 할 것이다. '박문문고' 중의 하나로서 그 제 1 책이 1941년에 출판되고, 이어 해방전에 모두 3책이 나왔다. 그것은 「三國史記」의 高句麗本紀 제 5까지의 譯註였는데, 高句麗本紀의 후반부와 百濟本紀는 원고를 인쇄소로 넘기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끝내 출판되지 못하였다.

이 「譯註三國史記」는 본문에 엄밀한 校訂을 가한데다가, 정확한 번역을 하였고, 또 註는 단어의 해석이 아닌 역사적 주석이었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의 역주작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책은 1956년에 그대로 다시 출판이 되었다(春潮社). 그러나 오랜동안 「三國史記」 전체에 대한 역주는 미완성인 채로 있던 것인데, 1977년에 완성되어 「國譯三國史記」(을유문화사) 2책으로 출판되었다.

이와 아울러 1956년에 「原文併譯註 三國遺事」(동국문화사)를 출판하였는데, 뒤에 재간되었다(광조출판사).

해방 뒤인 1948년에 국사개설서인 「朝鮮史大觀」(동지사)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뒤에 「國史大觀」(보문각), 「韓國史大觀」(동방도서)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셀 수 없이 여러차례 增修되었다. 선생은 학술지에 새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그 성과를 받아들여 즉시 이 개설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므로, 무시로 여러 부분이 개정되었던 것이다.

개인이 저술한 본격적인 첫번째 개설서인 이 책은, 이를 참고하지 않는 지식인이 없을 정도로 널리 읽혔다. 이 책은 단권의 개설서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여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알기에



故 斗溪 이병도 박사

적합한 것이었다.

이 「韓國史大觀」의 古代 부분과 高麗 부분을 좀더 확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 震檀學會에서 편찬한 「韓國史」(을유문화사) 7권 중의 古代篇(1959)과 中世篇(1961)이다.

선생은 보성전문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였고, 그 때문에 制度史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 논문이 「古代南堂考」(「서울대 논문집」1, 1954)였는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제도사 연구를 크게 권장하였었다.

선생은 특히 공동체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두레'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는데, 이 공동체이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요약해서 저술한 것이 「國史와 指導理念」(일조각, 1955)이었다.

古代史·儒學史 연구에 획기적 성과

선생의 중요한 연구분야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풍수도참설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일제시대에 「震檀學報」에 개별적인 논문을 많이 발표하여 왔었다. 그것을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히 살펴본 것이 「高麗時代의 研究」(을유문화사, 1948)였다. 한국 문화총서 중의 한 책으로 해방 뒤에 출판된 선생의 첫번째 논문집이었다. 이 책은 오랜 뒤인 1980년에 개정판(아세아문화사)이 간행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선생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전공한 학자로 알고 있다. 그만큼 선생은 고대사 논문을 많이 썼다. 「震檀學報」에 7차례에 걸쳐 연재된 「三韓問題의 新考察」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단행본이 될 정도의 장편논문이었다. 이러한 고대사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 1976년에 출판된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였다.

이 고대사연구의 간행은 제자들이 늘 종용해오던 것이지만, 선생은 오랫동안 미루어왔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논문집이 아닌 체계적인 고대사가 되도록 배려를 한 때문이었다. 그러한 구상은 이미 '서문문고' 중의 한권으로 간행된 「韓國古代社會와 古文化」(1973)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韓國古代史研究」의 大衆版이라고 할 성질의 것이다. 선생의 고대사 연구가 역사지리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치·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치고 있음은 그 목차만 보아도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선생의 학문적 작업은 儒學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였다. 「震檀學報」 등에 발표된 개별적 논문을 토대로, 일제시대에 이미 한문으로 儒學史概說을 완성하였었다. 선생은 이를 수정 가필하여 우리말로 출판하려고 하였으나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내왔었다. 이에 그 원고가 묵혀 있는 것을 아까워하여 우선 등사판으로라도 출판하자고 하여 서울대 국사연구실의 소장학자들의 노력으로 펴낸 것이 「資料韓國儒學史草稿」(1959)였다. 비록 등사판의 엉성한 것이었으나 국외에서까지 우리나라 유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널리 참고가 되어온 것이었다.

선생은 자주 이 유학사의 우리말 출판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였었는데, 드디어 1987년에 「韓國儒學史」(아세아문화사)로 출판되었다. 타계하시기 2년 전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유학사의 고전으로서 길이 연구자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보다 앞서 1986년에 그 漢文本이 활자화되어 「韓國儒學史略」(아세아문화사)으로 간행되었다.

선생이 일찍부터 큰 관심을 가진 것의 하나가 「하멜漂流記」였다. 이 표류기의 佛譯本과

英譯本을 대조하여 번역한 것이 「震檀學報」에 게재되었고, 이어 박문문고의 한 책으로 1939년에 출판되었다. 해방 뒤에는 불역본과 영역본을 부록으로 넣은 것이 1954년에 출판되어(일조각) 꾸준히 읽혔었다. 이것은 뒤에 「譯註蘭船濟州島難破記」(일조각)라 제목을 바꾸고 출판되었다. 이 표류기는 흥미도 있으려니와 한편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관계로 큰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대, 모든 분야에 폭넓은 관심

선생은 본격적인 연구논문 이외에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글들을 적지않게 발표하여 왔었다. 그러한 글들을 모아서 출판해낸 책이 여럿 있다. 우선 제일 이른 것은 선생이 회갑을 맞이하던 1956년에 출판한 「斗溪雜筆」(일조각)이었다. 그 뒤 대략 10년마다에 한권씩을 출판하여서, 1966년에 「내가 본 어제와 오늘」(신광문화사), 1975년에 「斗室餘滴」(박영사), 그리고 1983년에 「成己集」(정화출판문화사)이 나왔다. 쉽게 풀어 쓴 것이긴 하지만, 연구생활 속에서 느낀 것을 글로 나타낸 것이어서 친밀감이 있는 저술들이다.

이렇게 더듬어오고 보면 우선 선생의 학문적 관심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거의 모든 시대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고 이에 새로운 고증을 더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斗溪史學을 우리나라 실증사학의 대명사와도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斗溪史學으로 하여금 긴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